

## 제7장 수사법

(1교시)

### ▲ 수사법의 개념과 종류

#### 가. 수사법의 개념

: 수사의 방법, 기교. 즉, 일상어를 문학어로 바꾸는 기술

- 수사 -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 더 아름답고 조리 있게 만드는 일, 그 기술
- 수사학 - 그리스, 로마 시대 정치연설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그 효과를 올리기 위해 화법을 연구하면서 형성된 학문
- 현대수사학의 의미 - 문장법에 가까운 의미로 작문법과 함께 고려된다. 철학적 문학적 입장에서 사유와 표현을 함께 고찰하는 문체론적 연구의 의미 지님.

#### ● 수사학의 흐름

##### ○ 고대 수사학

- 아리스토텔레스 : 수사학 체계 정립(당시의 수사학은 연설을 대상으로 삼은 학문)
- 고전 수사학에서의 수사적 담화의 형식
  - 과거 행동의 판단에 주된 관심을 두는 법정 연설
  - 미래 행동의 촉구에 주된 관심을 두는 정치 연설
  - 현재 상태에 대한 공유된 신념의 강화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의전 연설

##### ○ 중세 수사학

- 주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설교와 같은 담화의 양식에서 발달

##### ○ 르네상스(문예부흥기)

- 고전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들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아짐에 따라 문체론적 수사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.
  - 그러나 자연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수사학의 학문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져 주로 작문 이론과 의사소통 이론에 몰두하게 됨.

##### ○ 현대

- 다시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.

※ 강의시간에 나오는 ‘수사법’은 일종의 문장론으로 이해할 것.

현대수사학은 주로 문장법, 작문론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.

#### 나. 수사법의 종류

- 비유법 - 직유, 은유, 의인, 활유, 의성, 의태, 풍유, 대유(제유, 환유) 등

- 강조법 - 과장, 영탄, 짐승(짐강), 반복, 대조, 현재, 미화, 열거, 비교, 억양, 생략, 연쇄 등
- 변화법 - 설의, 인용, 도치, 대구, 반어, 곡언, 문답 등

### ▲ 비유란 무엇인가

- 비유법  
: 어떤 사물(원관념)을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(보조관념)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
예) ‘내 마음(원관념)은 호수(보조관념)요’

- 비유법의 종류  
: 직유, 은유, 의인, 활유, 풍유, 의성, 의태, 대유(제유, 환유)

### 가. 직유

- :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‘같이’, ‘처럼’, ‘듯이’, ‘양’ 등의 매개적인 결합어를 사용하여 연결시키는 직접적 비유법

#### ㄱ. 관용적으로 쓰이는 직유법

- 오랜 가뭄으로 논밭이 **거북등같이** 갈라졌다.
- 두 달이 **쏟알같이** 흘러가 버렸다.
- 그는 밥 세 공기를 **마파람에 게눈 감추듯** 먹어치웠다.
- 세월은 **유수와 같다**.
- 로또에 당첨된 그는 돈을 **풀 쓰듯** 한다.

#### ㄴ. 속담 속의 직유법

-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
- 개미 금탑 모으듯 하다
- 미친년 널뛰듯
- 도둑놈 개 꾸짖듯
- 병어리 냉가슴 앓듯
- 복날 개 패듯
-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

#### ㄷ. 문학작품에 나타난 직유법

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

(박목월 「나그네」에서)

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

(서정주 「국화옆에서」에서)

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**은화(銀貨)**처럼 맑소.

(이상 「날개」에서)

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생달은 세상을 후려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 
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만

(나도향 「그믐달」에서)

종이를 찢어 풍년초를 털어 담고 손끝으로 비비면서 말아쌌다. **가죽같이** 메마르고 딱  
딱한 손가락들이 떨어져 자꾸만 흐트러졌다. 흔들리는 손가락들 사이로 종이와 담뱃가  
루가 흘러내렸다.

(황석영 「객지」에서)

#### · 직유법

- 두 가지 유사한 인상을 직접 대응시켜 비유하는 것
- 비유법 중 가장 보편적.
- 너무 잦은 사용이나 상투적인 직유법은 오히려 역효과
- 관용적 표현과 속담의 구분은 매우 어려움
- 비유법 연습에 가장 적당한 기법.

#### 나. 은유

: 매개어를 사용하지 않고 ‘(원관념)은 (보조관념)이다.’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비유  
법

예) ‘겨울(원관념)은 강철로 된 무지개(보조관념)가 보다’

- 오월은 계절의 여왕이다. 원관념-(     ), 보조관념(     )
- 침묵은 금이다. 원관념-(     ), 보조관념(     )
- 내 귀는 하나의 소라 껍데기, 어린 하느님. 원관념(     ), 보조관념(     )

※ 주로 소설에서는 직유법이, 시에서는 은유법이 많이 사용된다. 그들 각각은 제 나  
름의 쓸모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.

#### 다. 의인

: 사람이 아닌 사물 또는 관념에 사람의 속성을 부여하여 인격적 존재로 나타내는 비  
유법.

- 둥그런 하늘을 이고 응얼거리는 바다
- 뺨 부비며 일어나는 꽃봉오리
-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

#### 라. 활유

: 생물이 아닌 것에 생물의 속성을 부여하는 비유법. 비정물(非情物)을 유정물(有情

物)로 나타내는 것(의인법=환유법)

- 뿔뿔뿔 깃을 치는 청산(靑山)
- 으르렁거리는 파도
- 꼬리를 감추며 멀어져 가는 기차

#### 마. 풍유

: 원관념은 뒤에 숨고 보조관념만 겉으로 나타나 있어 본뜻을 독자가 짐작하도록 하는 암시적, 풍자적인 비유법(우화, 속담, 격언, 교훈담 등)

- 우물 가서 승냥 찾는다
- 도마에 오른 고기
- 빈 수레가 요란하다
- 등잔 밑이 어둡다
-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

#### 바. 의성, 의태

- : 의성-사물의 소리를 흉내내어 나타내는 비유법
- : 의태-사물의 상태와 동작을 시늉하여 나타내는 비유법

- 피꼬리는 피꼴피꼴, 매미는 매암매암
- 짹짹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

#### 사. 대유

: 개념의 한 부분이나 한 속성으로 전체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비유법으로 제유와 환유로 나뉜다.

#### ㄱ. 제유

: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로서 그 대상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법.

- 지금은 남의 땅-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(빼앗긴 들-국권을 상실한 조국)
-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(강호-대자연)
- 약주(술), 빵(식량), 강태공(낚시꾼)

#### ㄴ. 환유

: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것의 속성을 지닌 사물을 끌어들이는 비유법

- 흰 옷이 보고 싶어요.(흰 옷-우리 민족)
- 샤일록만 사는 마을이다.(샤일록-구두쇠)
- 금수강산(대한민국), 바지저고리(시골 사람), 사각모자(대학생)

※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

- 자신의 문장력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만 여겨 과장되게 사용하지 말 것.  
비유법은 말과 문장을 꼬고 그럴듯해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,  
이미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.  
(성경에 비유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 -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)

## ▲ 강조법

· 강조법의 개념

: 말이나 글의 표현을 좀 더 생생하고 진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.

· 강조법의 종류

: 과장법, 영탄법, 반복법, 점층법, 점강법, 대조법, 현재법, 미화법, 열거법, 비교법, 억양법, 생략법, 연쇄법

### 가. 과장법

: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.

- ㄱ. **향대과장**-실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내는 것
- ㄴ. **향대과장**-실제보다 더 작고 약하게 나타내는 것

- 산더미와 같은 파도
- 독수리보다 빨리, 사자보다 사납게
- 간이 콩알만하다.
- 쥐꼬리만한 월급봉투

### 나. 영탄법

: 기쁨, 노여움, 슬픔, 부끄러움 과 같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,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강조법.

- 어이할거나, 나는 사랑을 가졌어라!
-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 버선이여!
- 오, 참된 사랑이여!
-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여!

### 다. 반복법

: 같거나 비슷한 낱말, 구, 절, 문 등을 반복하는 강조법

- 해야 솟아라, 해야 솟아라, 말갯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.
- 쉬어가자, 벗이여, 쉬어가자.
- 산에는 꽃 피네, 꽃이 피네,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

#### 라. 점층법

: 말을 한 계단씩 끌어올려서 강하게, 크게, 깊게, 감흥을 고조시켜 절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강조법.

- 수신제가치국평천하
-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/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

#### 마. 점강법

: 뜻이 점점 약해지거나 범위, 규모, 크기 등이 점점 작아지게 하는 강조법

-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세기, 연대, 철, 요일, 시, 분

#### 바. 대조법

: 상반 혹은 상대되는 어구나 사물 또는 현상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는 강조법

-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
-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

#### 사. 미화법

: 아름다운 사물을 써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물을 예들려서, 완곡하게 표현하는 기법.

- 거리의 천사(거지)
- 양상군자, 밤손님(도둑)

#### 아. 열거법

: 내용이나 형식상 서로 다른 2가지를 어떤 분류대로 늘어놓아 뜻을 깊고 힘차게 하는 강조법.

- 사과, 배, 감, 복숭아, 이런 것들을 과일이라고 한다.
- 뛰고, 노래하고, 춤추고, 마구 웃어댔다.
- 미치고, 환장하고, 기가 막히고, 까무러칠 일일세.

#### 자. 비교법

: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의 크기, 성질, 내용, 모습 등의 정도를 견주어서 어느 한 사물을 선명히 표현하는 강조법

- 집채보다 큰 호랑이(덩치)
- 강낭콩보다 더 푸른 물결(색깔)

※ 비교법과 대조법과의 차이

-일정한 기준에 의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. 즉 두 사물의 성질상 공통 부분에 관한 수사법.

#### 차. 역양법

: 처음에는 치켜 올렸다가 나중에는 낮추는 것, 반대로 처음에는 낮추었다가 나중에는 치켜 올리는 것

- 너는 정말 머리가 좋아. 그런데, 성격이 더러운 게 흠이네.
- 그는 좀 모자라긴 하지만 착실한 사람이다.
- 백제는 뛰어난 예술을 지녔던 나라지만, 무력을 기를 줄은 몰랐다.
- 몸은 약하지만 의지는 강하다.

#### 카. 생략법

: 비교적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여 간결하고, 굳세고, 함축성과 여운을 띠게 하는 기법

- 가도 오도 못한다(가지도 오지도 못한다.)
- 왔노라, 보았노라, 싸웠노라, 이겼노라.

#### 타. 연쇄법

: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음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강조하는 기법.

- 기차는 빠르다, 빠른 것은 비행기, 비행기는 높다.
- 닭아 닭아 우지 마라,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.
- 금강이 무엇이뇨? 돌이요 물이로다, 돌이요 물이러니, 안개요 구름일러라. 안개요 구름이어니, 있고 없고 하더라.

### ▲ 변화법

- 변화법의 개념

: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어구나 서술에 변화를 주어 느낌을 다르게 하는 수사법

- 변화법의 종류

: 설의법, 인용법, 도치법, 대구법, 반어법, 곡언법, 문답법

#### 가. 설의법

: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기법.

- 그야말로 용감한 청년이 아닌가.
- 무슨 이익이 있으랴.

-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.

#### 나. 인용법

: 속담, 격언, 경전의 구절 등을 끌어와 문장에 신뢰감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기법

- ‘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,’고 공자는 말했다.  
셋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하더니, 당신이야말로 내게 좋은 교훈을 주었소.

#### 다. 도치법

: 문법에 맞는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뒤집어서 감정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기법.

- 가자, 빨리.
- 오, 생겨났으면,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이.
- 그림다 네가, 정작 헤어지고 나니.
- 오늘은 울고 싶다, 아무 까닭 없이.

#### 라. 대구법

: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나타내는 수사법

-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,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.
- 꽃은 안개와 같고, 사람은 구름과 같다.

※ 대조법은 사물의 상반되는 성질 또는 뜻을 맞세우지만, 대구법은 성질이나 뜻에는 상관없고 가락이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.

#### 마. 반어법

: 원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법

- 요 알미운 것.
- 참 많이도 준다.
-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.

#### 바. 곡언법

: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로 넌지시 돌려 말하는 방식.

- 어리석은 사람-법이 없어도 될 사람
- 매우 섭섭하다-과히 유쾌하지는 않다



#### 사. 문답법

: 글 쓰는 이가 직접 주장을 하지 않고, 두 사람 이상의 인물을 내세워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글의 단조로움을 피해가는 방법

- “소설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”
- “소설이라뇨? 문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소설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?”

#### 아. 그 밖의 비유법

- **비약법** : 일정한 흐름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다른 흐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.
- **역설법** : ‘아는 것이 병이다’

수사법은 어느 문장에서나 여러 수사법이 동시에 사용된다.

(2교시)

## ▲ 수사법,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

### 가. 좋은 비유는 다 나쁘다?

- 관용적 표현도 잘 활용하면 좋은 문장을 쓰는 기본조건이 될 수 있다.
- 다분히 의미가 고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작품들도 상상력을 발휘하면 전혀 새로운 무언가로 재탄생할 수 있다.
- 기성의 표현들, 기성의 비유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, 새로운 비유가 나온다.

예)

- 황석영의 <심청>
- 사전만 해도 백과사전 두께인 그리스·로마 신화
- 새로운 소설의 소재가 되는 단군신화

### 나. 수사법은 기교일 뿐이다?

형식 혹은 수사법이 좋다고 해서 내용에 영향을 주는가?

- 포장지->형식 혹은 수사법
- 선물->내용

포장지가 좋다고 해서 그 포장지가 선물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. 좋은 포장지로 포장했다고 하여 선물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.

① 포장지가 좋다고 해서 내용물인 선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, 만약 내용물도 나쁘고 포장지도 나쁘다면?

-> 좋은 포장지가 어느 정도 빈약한 선물을 보완해 줄 수는 있다.

② 포장이 정말 그럴싸해 받는 사람이 잔뜩 기대를 했는데, 정작 내용물은 형편없는 경우?

->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. (포장지의 역효과)

∴ 좋은 수사를 사용한 좋은 문장이 어느 정도 빈약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글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나, 멋진 수사를 사용한 문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.

좋은 글이란 진정성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 것이지,  
화려하고 멋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글이 아니다

## ▲ 수사법을 사용한 문장쓰기

### 가. 빈칸에 적절한 낱말, 구, 절 등을 넣어보자

- 마침내 줄 끊어진 ( )처럼 힘없이 떨어진 그의 손이 그의 몸 위에 떨어진다.
- 언덕 아래에서 보니 드높은 ( )와 같은 전원교향악 별장가든 위 하늘에 ( )처럼 가는 상현달이 떠 있었습니다.
- 우리가 맞잡은 손아귀처럼 너무도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놀라서 우리는 ( ) 오래 오래 꿈쩍 안 하고 있었다.
- 카운터에는 은진의 유니폼 조끼가 ( )처럼 걸쳐져 있었다.
- 내 방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엽서 사이에 ( )처럼 꼴사납게 뭉그러져 버린 파리

→

마침내 줄 끊어진 **연**처럼 힘없이 떨어진 그의 손이 그의 몸 위에 떨어진다.  
(성석제 「인지상정」에서)

언덕 아래에서 보니 드높은 **성채**와 같은 전원교향악 별장가든 위 하늘에 **여인의 눈썹**처럼 가는 상현달이 떠 있었습니다.  
(성석제 「본래면목」에서)

우리가 맞잡은 손아귀처럼 너무도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놀라서 우리는 **감전당한 듯**이 오래 오래 꿈쩍 안 하고 있었다.  
(박범신 『나마스테』에서)

카운터에는 은진의 유니폼 조끼가 **허물**처럼 걸쳐져 있었다.  
(구광본 「맘모스 편의점」에서)

내 방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엽서 사이에 **실패한 나비 표본**처럼 꼴사납게 뭉그러져 버린 파리  
(김연경 「허를 죽이다」에서)

#### 나. 직유법을 사용해 표현해 보자

- ㄱ. 몹시 추운 날
- ㄴ. 몹시 더운 날
- ㄷ. 더럽다
- ㄹ. 사납다

ㄱ. 비쩍 마른 얼굴

ㄴ. 각진 턱

→

ㄱ. (빙하기가 오기라도 한 듯 몹시 추운 날)

ㄴ. (태양이 서너 개쯤 떠 있는 것 같은 몹시 더운 날)

ㄷ. (거지가 친구하자고 달려들 것처럼 더럽다.)

ㄹ. (잠자다 코털 뽑힌 사자처럼 사납다.)

ㄱ. (한 닳새쯤 톡톡히 굶은 사람처럼 비쩍 마른 얼굴)

ㄴ. (고집이 덩어리째 들어있는 것 같은 각진 턱)

다. 다음 문장을 제시한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쓰자.

• 그가 나를 훑어보고 있다.(집요함)

→ 그의 눈빛은 뱀의 혀바닥이 되어 내 몸 구석구석을 핏고 있었다.

→ 그의 시선이 등나무 줄기처럼 내 발목부터 시작해 종아리, 허벅지로 감겨 올라가더니 허리에서 한바퀴 크게 돌고는 굼뜨게 가슴을 지나, 이윽고 목덜미에 이르렀다. 살 인자의 손아귀처럼 그의 시선이 내 목을 옥죄고 있었다.

• 소년이 마당 한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있다.(쓸쓸함)

→ (길가에 나뭇구는 돌멩이처럼 소년이 홀로 마당 한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있다.)

• 바람이 불고 있다.(폭풍전야)

→ (습기를 잔뜩 머금은 불길한 바람이 발정난 고양이처럼 섬뜩한 소리를 일으키며 불어오고 있다.)

라. 하나의 상황을 다른 문장으로 고쳐 쓰자.

예) 결혼하자.

•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내 옆에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

• 당신의 속옷을 빨아드리고 싶어요.

• 그대의 무덤 옆자리는 내가 맡아놨어요.

· 당신의 딸이 내 딸이었으면.

### 배가 고프다.

- (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다.)
- (씻덩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)
- (얼마나 배고 고프는지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.)
- (뱃속에서 거지들이 밥 달라고 아우성이다.)

### 목이 마르다.

- (목이 바짝바짝 탄다.)
- (이 자리에서 우물이라도 파고 싶을 지경이다.)
- (오줌이라도 받아먹고 싶다.)

마. 다음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 쓰자.

트랙터가, 식전부터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까치 떼가 이젠 배고프다며 갈아 엮어놓은 논으로 밭으로 주전부리하러 날아가 비로소 조용해진 주변 공기를 느닷없이 울려댔다.

→  
식전부터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까치 떼가 이젠 배고프다며 갈아 엮어놓은 논으로 밭으로 주전부리하러 날아가 비로소 조용해진 주변 공기를 느닷없이 울려대는 것은 다름 아닌 트랙터였다.

(한창훈 「청춘가를 불러요」에서)

바. 두 낱말에서 연상되는 것들로 문장을 만들어 보자.

ㄱ. 전쟁과 평화

→(아무리 좋은 전쟁일지라도 나쁜 평화보다는 좋지 않다.)

ㄴ. 남자와 여자

→(남자는 기회만 있으면 하려 하고, 여자는 핑계만 있으면 하려 한다.)

